

왜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는가?

- 근대 일본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 인식과 대응 -

심 호 섭*

1. 머리말
2. 장기전·소모전 인식과 단기결전의 채택
3. 전투수행방식 재편의 한계와 백병돌격 전술의 강조
4. 맺음말

1. 머리말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 군사사 연구자 존 다우어(John W. Dower)는 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군을 “이상한 규율과 전투 기술을 가진 초인(Supermen)”으로 표현하였다.¹⁾ 미군의 시각에 비추어 볼 때, 기관총의 십자포화 속으로 가감 없이 돌격하며 전원 전사하는 일본군은 진실로 이해하기 힘든 집단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사전략 및 전투수행방식을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전임강사

1) John W. Dower, *War without Mercy*, New York: Pantheon Books, 1986, p.9.

다루기로 한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그 이전의 전쟁과는 질적으로 크게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었다.²⁾ 그 특징적인 변화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전쟁의 양상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른바 총력전이고 장기전이었으며 소모전이었다. 전후방의 구분 없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웠고, 단기간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지 못한 채 전쟁이 장기화되었으며, 상대방의 전력을 일거에 박탈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전투에 의해 피아의 전력을 소모하던 전쟁이었다.

둘째, 전투수행방식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공격과 방어에서는 이전의 전쟁에 비해 포병과 기관총의 화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방자의 화력이 공자보다 우세하여 진지전, 참호전의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를 타개하기 위해 전차, 항공기, 독가스, 화염방사기 등 여러 새로운 무기가 출현하였다. 방어진지를 돌파하기 위한 ‘후티어 전술(Hutier Tactics)’,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로(Gouraud) 장군의 중심방어 전술 등 새로운 형태의 전투 수행방식이 시도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양상에 대한 관심은 비단 구미열강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시아의 일본에서도 지대하였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드러난 총력전 양상은 일본 육군의 국가총동원 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일본근대사 연구의 주요 쟁점인 군국주의 일본 태동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쟁점과 맞물려, 일본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양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 육군의 총력전 구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Roger Chickering, Strig Foster, *Great War, Total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19~33;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전쟁사』, 서울: 황금알, 2005, 253~254쪽.; 존 엘리스, 김병선 역, 『참호에서 보낸 1460일』, 서울: 마티, 2005, 129~141쪽.; 피터 심킨스 외 2명, 강민수 역,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69~124쪽.; John Keegan, *The First World War*, New York: Alfred A. Knopf, 1998, 조행복 역, 『제1차 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9, 252~291쪽.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1920년대 육군의 총력전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는 총동원의식의 고조와 총동원체제의 정비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또한 육군의 총력전 인식에는 다소 견해차이가 있었으나, 총력전 준비야말로 1920년대 이후 일본 육군이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에 견해를 일치한다.³⁾

한편, 총력전 연구에 비해 제1차 세계대전의 주된 전쟁양상인 장기전·소모전과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일본 육군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는 1920년대 일본 육군이 추진한 군제개혁의 실패는 군대가 국민의 군대가 아닌 천황제의 계급적 군대였기 때문으로 결론짓는다.⁴⁾ 또한 오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군이 구미열강의 군사적 흐름에 따라 가지 못한 이유로 이 시기 일본 육군은 전쟁의 교훈을 수용하는데 태만하였으며, 시베리아 출병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였기 때문으로 본다.⁵⁾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일본 육군이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군사개혁을 시도하였지만 파벌간의 다툼, 예산의 문제 등으로 변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일본 육군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⁶⁾

이처럼 일본 육군이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적 교훈을 받아들이지

3) 일본 육군의 총력전 수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藤原彰, 『総力戦段階における日本軍隊の矛盾』, 『思想』399, 1957; 藤原彰, 『軍事史』, 東洋經濟新聞社, 1961; 高橋正衛, 『昭和の軍閥』, 中央公論社, 1969; 吉田裕, 『第一次世界大戦と軍部: 総力戦段階への軍部の對應』, 『歴史学研究』460, 1978; 纈顯厚, 『総力戦体制研究——日本陸軍の国家総動員構想』, 三一書房, 1981; 加藤陽子, 『徴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吉川弘文館, 1996; 山田朗, 『軍備拡張の近代史: 日本軍の拡張と崩壊』, 吉川弘文館, 1997; 戸部良一, 『日本の近代(9): 逆説の軍隊』, 中央公論社, 1998; 黒澤文貴, 『大戦間期の日本陸軍』, みすず書房, 2000; 小林英夫, 『帝国日本の総力戦体制: 戦前・戦後の連続とアジア』, 有志舎, 2004 등이 있다.

4) 藤原彰, 『軍事史』, 東洋經濟新聞社, 1961.

5) 大江志乃夫, 『日本の参謀本部』, 中央公論社, 1985.

6) 前原透, 『日本陸軍用兵思想史』, 天狼書店, 1994; 山田朗, 『軍備拡張の近代史——日本軍の膨張と崩壊』, 吉川弘文館, 1997; 黒澤文貴, 『大戦間期の日本陸軍』, みすず書房, 2000; 黒野耐, 『帝国陸軍の〈改革と抵抗〉』, 講談社現代新書, 2006.

못했다는 인식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왜 일본 육군이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며, 특히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적 특징에 대하여 일본 육군이 지녔던 인식과 대응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양상 즉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일본 육군의 인식과 대응을 밝힌다. 다음으로 새로운 무기 출현 및 전술변화에 따른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장기전·소모전 인식과 단기결전의 채택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 육군의 인식은 크게 육군성과 참모본부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육군성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인 1915년 ‘임시군사조사위원(臨時軍事調査委員)’을 설치하여 전쟁의 군사적 특징을 일본 육군의 전략 및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임시군사위원’은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제도, 무기, 전술 등 군사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海外差遣者報告』, 『臨時調査委員月報』 등을 발간,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를 알리려고 노력하였다.⁷⁾

참모본부는 전쟁기간 및 전쟁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 관전무관(觀戰武官) 및 시찰단을 파견하여 전쟁의 양상을 관찰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1914년부터 1924년까지 참모본부가 파견한 시찰단은 약 220명에 달하며, 보고서는 1,145건 이상이다.⁸⁾ 파견 군인의

7) 여기서는 군사부분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교통, 국민생활에 이르는 총 335개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육군은 이미 총력전 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參謀本部第一部, 「部外秘 海外差遣者報告目録 大正三年以降」

계급은 육군대학을 졸업한 대위급이 많았으며, 이들은 러일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었다. 이들이 작성한 전쟁의 전황과 전훈(戰訓) 등에 관한 기사는 육군 기관지인 『偕行社記事』에 게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참모본부에서는 『歐洲戰爭叢書』, 『歐洲戰爭叢書特号』 등을 발간하였다. 이렇듯 참모본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략, 전술적 교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듯, 육군성과 참모본부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일본의 군사전략을 제시하는 『帝國國防方針』이나, 육군의 典範令 및 각 병과의 조전(操典)에 반영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에서는 독일과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참호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지루한 장기전·소모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일본 육군 수뇌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육군 참모차장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는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에 대해 “우리 국정(國情) 그리고 국민성은 지금 유럽의 전쟁과 같이 장기에 걸친 작전에는 불리한 것이 확실하며, 현재의 국력으로 장래의 적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세를 점하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⁹⁾ 이는 일본의 국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전쟁을 장기전·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근위보병 제2여단장 츠노 가즈스케(津野一輔)는 「유럽전에 관한 소감 일절(一節)」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물적 전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¹⁰⁾

위와 같은 수뇌부의 의견차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장기전·소모전 양상에 대한 일본 육군 내의 이른바 ‘근대화노선파’와 ‘현상

9) 田中陸軍中將, 「歐洲戰爭ノ與ヘタル戰略戰術上ノ教訓」, 『偕行社記事』 제512호(1916년 12월), p.5.

10) 津野陸軍少將, 「歐洲戰ニ關スル所感ノ一節」, 『偕行社記事』 제529호(1918년 8월), pp.1~4.

유지파'의 노선 대립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근대화노선파’는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육군대신이었던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를 중심으로 한 육군성의 군사제도 담당자들과 나가타 테츠잔(氷田鉄山)을 중심으로 한 러·일전쟁 후 형성된 실전경험이 없는 육군대학교 출신의 신흥 엘리트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파벌로, 1920년대 군의 개혁을 주창해왔다.¹¹⁾

이들은 장기전·소모전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우가키는 1925년 “단시일내에 전국(戰局)의 종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전 초기에 투입이 가능한 정예부대를 평시부터 준비해야 하며, 전쟁이 확대되어 지구전이 될 경우에는 국가총무장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¹²⁾ 즉, 장기전·소모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동원이나 물자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여도 근대화된 정예 상비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정예 상비군이 결전을 통해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전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근대화노선파’는 동원체제 정비와 무기의 현대화 등을 통해 장기전에 대한 준비를 역설한다.¹³⁾

이에 비하여 ‘현상유지파’는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다나카 구니시게(田中国重) 참모본부 제2부장, 오타케 사와지(大竹沢治) 참모본부 제1부장 등 주로 작전을 담당하는 군령계통의 출신들로 이루어진 파벌이다.¹⁴⁾ 이들은 일본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자급자족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전·소모전으로 치달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기전·소모전에 대해 준비로 불필요하게 힘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단기결전으로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데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상대가

11) 山田朗, 위의 책, p.110.

12) 陸軍省軍務局, 『帝國及列強の陸軍』, 1924, pp.4~6.

13) 黒野耐, 『帝國國防方針研究: 陸海軍國防思想の展開と特徴』, 總和社, 2000, p.139.

14) 山田朗, 위의 책, p.110.

본격적으로 전선을 구축하기 이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많은 수의 사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이처럼 일본 육군의 수뇌부 내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양상인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하였다. 실제로 일본 육군의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대응이 일본의 군사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군사전략은 「제국국방방침」에 잘 정리되어 있다.¹⁶⁾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제국국방방침」의 요지(군사전략)¹⁷⁾

		1907년	1918년(1차개정)	1923년(2차개정)	1936년(2차개정)
국방의 방침 (군사전략)		공세주의 단기결전	공세주의 단기결전	공세주의 단기결전	공세주의 초기작전중시 장기전에 대비
가상 적국	육군	러시아	러시아, 중국	소련, 중국	소련, 중국
	해군	미국, 독일, 프랑스	미국	미국	미국, 영국
소요 병력	육군	평시 25개 사단 전시 50개 사단	전시 40개 사단	초기작전을 위한 40개사단	초기작전을 위한 50개 사단
	해군	(생략)			
개정 특징	러일 전쟁 후 제정	1차 대전 후의 국제정세, 군비확장에 대응	워싱턴 회의 후의 국제정세, 군비축소에 대응	조약탈퇴후의 국제정세, 무한 군비확장에 대응	

제1차 세계대전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개정된 1차 개정판(1918)과, 전쟁의 교훈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활발해졌으리라 판단되는 5년 후의 2차 개정판(1923)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차 개정판(1918)에서 일본의 군사전략은 단기결전과 공세주의이다.¹⁸⁾ ‘근대화노선파’와 ‘현상유지파’의 논쟁이 진행되는

15) 黒野耐, 위의 책, p.140.

16) 「제국국방방침」은 1907년(明治40) 제정 후 3차례, 즉 1918년(大正7), 1923년(大正12), 1936년(昭和11)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黒野耐, 위의 책, pp.23~26;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戦史叢書 大本營陸軍部(1)』, 朝雲新聞社, 1967를 참고할 것.

17)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위의 책 참고.

18) 黒川雄三, 『近代日本の軍事戦略概史』, 芙蓉書房, 2003, pp.105~106.

2차 개정판(1923)에서도 단기결전을 위한 공세주의가 여전히 국방의 방침으로 여겨진다.¹⁹⁾

이후 일본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단기결전으로서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1920년대 후반 이른바 파벌 다툼에서 승리한 ‘현상유지파’가 육군성 및 참모본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일본 육군의 군사전략의 방침은 “선제의 이를 점해 공세를 취하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는 공세주의와, “적보다 먼저 신속하게 희망하는 병력을 한 지점으로 집중시켜 적 야전군을 격파하는 것을 작전방침으로 한다”는 단기결전주의로 굳어지게 된다.²⁰⁾ 즉, 파벌 경쟁에서의 승패여부가 일본의 군사전략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육군 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통해 장차전은 장기전·소모전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긴 하였지만, 이후의 군사전략은 이전과 같은 단기결전으로 고착된다. 일본 육군은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준비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방침으로써 단기결전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장기전·소모전의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군비가 증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당시 일본 육군이 처한 외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당시 1921년 워싱턴회의로 시작된 군축이라는 국제 및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군비확충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²¹⁾ 특히, 미국 및 유럽열강에 비하여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일본이 장기전·소모전 양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장기전·소모전을 통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실제 일본의 군사전략으로

19) 다만, 2차 개정판에서는 이를 위한 소요병력으로 “초기작전에 필요한 40개 사단이라는 상비전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육군의 소요병력에 “初期作戰을 위한 40개 사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작전’ 대신 ‘초기작전’을 언급한 데에는 육군이 초기 그 이후의 작전을 염두해 둔 용어선정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작전’의 언급은 육군이 장기전 양상을 예상하였으며, 이는 우카키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노선파’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 防衛片防衛研修所戰史室, 위의 책, pp.229~270 참고.

21) 加藤陽子, 위의 책, pp.223~224.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위에서 지적한 노선의 대립과 일본의 국력과 같은 전략환경이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근대화노선파’와 ‘현상유지파’의 대립도 단기결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군대의 질과 양 중의 선택 여부, 혹은 장기전·소모전 준비 여부에 대한 차이만 있었지, 결국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준비보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결전을 우선시한 것이 육군 내부의 공통된 흐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육군은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준비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단기결전을 구상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구상이 「제국국방방침」의 제2차 개정판(1923)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장기전·소모전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결전이 군사전략의 방침으로 유지되고 강조됨에 따라 육군은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으로 기동전·섬멸전 연구에 매진하였다. 특히, 포위섬멸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당시 일본 육군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군의 작전계획인 ‘슐리펜 계획’이다.²²⁾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라는 양면의 적에 맞서서 먼저 프랑스군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섬멸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싸운다는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 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를 6주 이내라는 빠른 시일 내에 굴복시키기 위해, 단기결전으로서 우익과 좌익의 비율을 7:1로 하여 프랑스군을 포위섬멸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마른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프랑스군을 포위 섬멸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고, 전쟁의 양상은 지루한 참호전 및 장기전이 되었다.²³⁾

22) 參謀本部編, 「開戦前における陸軍の作戦計画とマルヌ開戦の研究」, 『欧州戦史叢書』第34号, 1920; 參謀本部編, 「殲滅戰」, 『欧州戦史叢書』第特14号, 1921. 여기서는 1차대전 당시의 독일과 현재 일본이 놓인 비슷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다정면작전의 수행, 경제력과 산업력의 한계로 인한 장기전보다는 단기결전, 내선작전을 강요받게 되는 부분, 통수권의 신봉이며 당시 일본육군이 생각한 가상적국이 소련(구러시아)과 중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와 프랑스를 적으로 둔 독일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23) Doughty & Gruber, *Warfare in the Western World*, Volume II, Lexington: D.C Health and Company, 1996, p.43.

전쟁 이후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는 독일의 작전계획이 실패한 것은 슐리펜 계획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계획을 수행한 당시 독일군 참모총장이었던 몰트케(Helmuth Johann Ludwig von Moltke)의 과감성과 이해력의 부족으로 인해 최초 슐리펜 계획이 의도한 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²⁴⁾ 즉, 최초계획대로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하였다면 프랑스를 패배시켰을 것이고,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가지 않았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독일군이 러시아군에 대승리를 거둔 탄넨베르크 전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 전투는 당시 일본 육군의 참모본부, 육군대학교에서 “섬멸전법에 관한 원칙적 연구”로서 다루어졌다²⁵⁾. 또한 섬멸전을 하는데 있어서 “소질(素質)이 떨어지는 적에 대한 적의 연구는 필요하며, (...중략...) 적의 통상적인 전법을 간파하고 이에 따른 전법을 연구하고, 섬멸전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략을 육성함과 동시에 원칙 이외의 원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한다.²⁶⁾ 여기서 ‘소질이 떨어지는 적’이란 일본 육군의 가상적국인 러시아를 의미하며, 독일군이 러시아군에 대승리를 거뒀던 것과 같이 일본 육군도 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육군의 최상위 교범인 『통수강령(統帥綱領)』(1928)에서도 “공세로써 신속하게 적군의 전력을 격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집중과 과감한 기동을 통한 섬멸전을 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신속한 집중’과 ‘과감한 기동’은 기계화부대의 신속한 기동이 아닌 보병의 기동이었으며, 이를 위해 일본 육군은 현장지휘관의 독단전행(獨斷專行)을 강조하고 장려하였다.²⁸⁾ 결국 일본 육군은 단기결전을

24) 大江志乃夫, 『日本の參謀本部』, 中公新書, 1981, pp.144~145.

25) 參謀本部編 「開戰前における陸軍の作戰計畫とマルヌ開戰の研究」, 『歐洲戰史叢書』 第34号, 1920; 謀本部編 「殲滅戰」, 『歐洲戰史叢書』 第特14号, 1921 참고.

26) 위의 책, 「殲滅戰」.

27) 參謀本部, 『統帥綱領』, 1928, p.1.

28) 여기서의 독단전행이란 작전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좋고, 「근대일본 육군의 ‘독단전행’과 만주사변」, 『만주연구』 제12집, 2011, pp.161~164를 참고할 것.

군사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포위섬멸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3. 전투수행방식 재편의 한계와 백병돌격 전술의 강조

제1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인 서부전선은 진지전·참호전의 양상을 띠었다. 공자가 돌격을 하며 적진지에 대한 돌파를 감행하다가, 결국 방자의 포병 및 기관총 등의 화력에 의해 대량의 희생을 내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또한 양측이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하며 결국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전투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전쟁양상의 교훈은 공자의 공격보다 방자의 방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었으며, 그 요인은 효과적인 화력의 사용에 있었다.

한편, 방어진지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전술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후티어 전술’이다.²⁹⁾ 또한 공격 시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투단위가 소규모 단위로 작아져, 전투원 개개의 전투능력이 중시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차와 항공기 등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는 참호전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무기체계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이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영국의 풀러(John Frederick Charles Fuller)의 ‘기계화전’, 이탈리아의 두헤(Guilio Douhet)의 ‘항공전’의 군사이론 등이 등장하였다. 영국의 리텔하트(Basil Herny Liddell Hart)는 풀러의 ‘기계화전’을 발전시키는 한편, 보병전술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하였다. 보병 화력의 주력은 기관총이며, 소총의 시대는 지났으며, 소총도 자동소총화

29) 자세한 내용은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전쟁사』, 황금알, 2005, 240~243쪽을 참고할 것.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리고 보병의 전투대형은 이전의 밀집대형이 아닌 적 화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관총을 중심으로 산개대형으로 소산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⁰⁾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수용과 이의 효과적인 활용에 따른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으며, 이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영향을 끼쳤다.

훗날 독일 육군은 새로운 군사이론과 무기체계를 그들의 군사전략에 맞게 수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격전이라는 전투수행방식으로 순식간에 강국 프랑스를 굴복시켰다. 물론 결과론적 입장에서 서전의 완벽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갔지만, 최초 그들이 구상했던 단기결전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전차의 집중적인 운용을 통해 이를 중심으로 한 빠른 기동과 근접폭격기의 지원 등 새로운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한편, 독일과 같은 단기결전이라는 군사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육군 역시 전차, 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군근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각 열강과 마찬가지로 일본 육군 내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와타나베 죠타로(渡辺錠太郎)³¹⁾는 “현 전투방법은 지나친 공격정신의 오용에 따라 무모한 돌격의 정신만능주의에서 오는 육탄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전쟁의 실상은 “포병과 기관총의 유효사정거리의 화력 앞에서 보병은 밀집대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³²⁾ 이와 같은 전쟁 시찰단의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 육군 역시 보병 전투에 있어서 기관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총 위주의 밀집 돌격은 강력한 화력 앞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30) 김철환, 『전쟁 그리고 무기의 발달』, 양서각, 1997, 109~110쪽.

31) 육군소장, 1917년 네덜란드 무관, 1925년 육군대학교장, 1930년 타이완군사령관, 1935년 육군교육총감 역임. 자세한 내용은 秦郁彦編, 『日本陸海軍総合事典』 [第2版], 東京大学出版会, 2005. 를 참고할 것.

32) 渡辺錠太郎, 『歩兵操典ノ改正ニ就テ』, 『偕行社記事』 제554호, 1921.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군에서는 상대의 화력으로 부터 피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공격 시 효과적으로 기관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소개전투(疏開戰鬪)’가 일본 육군의 기본전술로 도입되었다. 여기서 ‘소개전투’란 소총, 경기관총, 유탄수로 구성된 분대(分隊)를 기본단위로 하여 기동과 사격, 돌격을 실행하는 전투방식이다.³³⁾ “소개전투는 보병전투의 주요한 방식으로 적 화력의 효력을 감소시켜 아군의 화력과 돌격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을 그 취지”로 분대단위 위주의 ‘소개전투’가 강조되었다.³⁴⁾ 이는 종래의 중대(中隊) 중심의 전투수행에서 비약적으로 세분화된 것이었다.

또한 전투 대형 역시 분대 단위의 소개대형으로 변화하였다. 『보병조전 초안 개정 이유서(步兵操典素案改正理由書)』(1921)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양상을 통해 화기와 화력의 위력을 고려하여 소개대형을 채용한다”고 하였다.³⁵⁾

원래 일본 육군 보병의 전투수행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중대가 밀집대형으로 기동하다 전투 시작 직전에 산개로 전환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대를 기본 단위로 하는 백병돌격으로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었다.³⁶⁾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포화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대 단위 위주의 ‘소개전투’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국가의 독특한 묘기” 또는 “우리 국민의 성격에 합당한 장래 전투에 있어서의 비결”로 칭송받는 이른바 일본 육군의 ‘장기(長技)’인 백병돌격(白兵突撃, 총검돌격, 착검돌격)도 그 운용방법이 변화하였다.³⁷⁾ 기존에 중대별로 행해진 돌격은 “최초의 돌격은 통상 소대장의 명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와 같이 소대단위로

33)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戦史叢書 関東軍(1)』, 朝雲新聞社, 1969, p.34.

34) 陸軍省, 『步兵操典草案』, 1923, p.94.

35) 教育総監部, 『步兵操典草案改正理由書』, 偕行社, 1920, pp.2~3.

36) 위의 책.

37) 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 『戦史叢書 関東軍(1)』, 朝雲新聞社, 1969, p.30.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³⁸⁾ 또한 “스스로 호기를 발견할 경우 분대장이 돌격의 호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처럼 분대 단위의 돌격이 가능해졌다.³⁹⁾

또한 『보병조전 초안 개정 이유서(步兵操典素案改正理由書)』(1923)에서 백병돌격의 시기에 대해 “(돌격은) 야간을 이용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즉, 적의 사격으로부터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야간에 야음을 틈타 돌격을 행할 것을 제시하였던 것이다.⁴⁰⁾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육군의 전투방식에는 분대 위주의 ‘소개전투’가 채용되었으며 백병돌격의 방법 역시 변화가 있었다.

위와 같은 전투수행방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군 근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이는 1923년 육군대신으로 취임한 우가키 카즈시게의 ‘우가키 군축’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1925년 실시된 군축은 “유래 없는 4개 사단 감축”이 주요 골자였다. 우가키는 사단 감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육군의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항공부대의 확충, 전차부대의 신설, 고사포부대의 신설 등 상당부분 군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⁴¹⁾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목표로 했던 ‘군 근대화’는 온전히 달성되지 못했다.⁴²⁾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 관전무관으로 활동하였던 포병장교들을 중심으로 보·포병 동시 중시론이 주창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전쟁에서 드러난 포병 화력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차 포병 화력을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포병 화력의 증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군축의

38) 陸軍省, 『步兵操典草案』, 1923, p.120.

39) 위의 책.

40) 教育總監部, 『步兵操典草案改正理由書』, 偕行社, 1923.

41) 藤原彰, 『軍事史(上)』, 東洋經濟新聞社, 1961, pp.171~172; 川島正, 『軍縮の功罪』, 近代文芸社, 1994, pp.103~113. 여기에는 구체적인 규모, 편제 및 교육까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42) 川島正, 위의 책, pp.154~155.

결과는 여전히 화력경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⁴³⁾ 포병의 강화는 육군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는 우가키 군축에서 실시한 사단의 감축에 있어서도 보병보다는 포병 위주로 병력이 감축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⁴⁴⁾

결국, 군축을 통한 군 근대화 이후에도 일본 육군의 장비는 과거의 러일전쟁 당시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체계 면에서 세계열강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이른바 '2등 육군'으로 추락하고 만다. 대표적으로, 보병의 기본 화기는 러일전쟁 당시와 동일한 총검을 장착한 38식 소총⁴⁵⁾이었으며, 이의 기본전술은 사격보다는 총검술에 의한 백병돌격 중심이었다. '소개전투'라는 새로운 전투수행방식이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화력보다는 정신력을 우선하는 일본육군의 전투 방식의 근간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20년대 후반에 와서는 정신력을 강조하는 풍조가 팽배해진다. 교육총감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는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필승의 신념은 전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중략...) 하급 간부 또는 병졸의 신념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며 유해무익의 장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중략...) 전쟁의 승패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정신적 요소와 훈련 상의 성과이다. 장차 이것이 우월하다면 다른 물질위력을 압도하여 승리의 길을 달성할 수 있다.⁴⁶⁾

43) 大江志乃夫, 『日本の参謀本部』, 中公新書, 1985, p.143.

44) 山田朗, 『近代戦争の兵器思想動員』, 青木書店, 2006, pp.38~41.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육군이 포병 화력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보병의 기득권 유지의 일환이었거나, 아니면 육군 내에서 보병의 전투력을 지나치게 맹신하였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료를 바탕으로 차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45) 38식 소총은 1905년부터 상용화된 일본 육군의 표준 개인화기이다. 기존의 소총과 비교해 볼 때 만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래, 먼지, 물 등의 이물질로부터 성능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구경을 기존의 6에서 7mm로 높여 살상력을 증대시켰다. 다만, 총검을 장착한 총의 길이가 170cm(총검 39.8cm)이며, 이는 당시 일본인 남성의 평균 신장 약 155cm에 비해 지나치게 길었다. 연발 장전이 되지 않고 한발 한발 재장전 후 발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38식 소총은 태평양 전쟁 시까지 사용되었다.

무토는 1920년대의 자유와 자율로 대변되는 ‘데모크라시’ 사조로부터 오는 군대 내의 동요를 막고 상대적으로 열세한 물질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승의 신념이 있다면, 다른 물질적 요소를 압도해 승리의 길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병 위주의 백병돌격 강조는 ‘군 근대화’의 역풍과 그 실패에서 기인하였다. 물론 처음부터 ‘군 근대화’ 인식에 반대하는 여론은 존재하였다. “병기 등의 질과 수량을 제일 먼저 염려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들의 형식을 모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포화의 효력은 결코 예상과는 다르며, 보병은 이런 화력을 기대하지 말고 오로지 전진해야만 한다”며, 처음부터 화력주의 맹신을 경계하는 인식이 존재하였다.⁴⁷⁾

1928년 개정 『보병조전(步兵操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물질적 요소를 강조한 결과 무형적 요소가 경시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는 당시 우가키 군축에 의해 군의 근대화가 시도되었지만 일부의 부대를 제외하고 근대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⁸⁾ 물질적 전력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물질적 전력에 의존할 수 없으며, 이는 무형적 전력의 강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후 일본 육군은 ‘군 근대화’와 같은 군 개혁이나 물질적 전력의 강조보다는 정신력과 같은 무형적 전력의 강조를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일본 육군은 무엇보다도 공격정신(攻撃精神)을 강조하였다. 『步兵操典』(1928)에서는 ‘필승의 신념’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 용어는 『戰鬪綱要』(1929)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또한 “훈련에 필승의 신념을 고취시키고 군기를 엄정하게 하여 공격정신이 충만한 부대는 물질적 위력을 배가시켜 전투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하였다.⁴⁹⁾ 이처럼 1920년대 후반에 와서 육군 내에서 공격정신의

46) 河辺正三, 『日本陸軍精神教育史考』, 原書房, 1980, p.86에서 재인용.

47) 柴山重一, 「歐州戰爭教訓ノ採用ニ就テ」, 『偕行社記事』 554호, 1920.

48) 防衛庁防衛研修所戰史室, 『戰史叢書 大本營陸軍部(1)』, 1967, pp.267~268.

49) 陸軍省, 『步兵操典』, 1928, p.2.

강조가 이전보다도 훨씬 강도 높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무형전력 즉, 정신력의 강조는 백병돌격의 강조로 이어지기 쉬웠다. 공격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전투수행방식이 백병돌격이기 때문이다.⁵⁰⁾ 돌격에 필요한 ‘필승의 신념’을 더욱더 강조하여 “승패는 병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신력에 기인하는 것이며, 공격정신이 뛰어난 군대는 약한 전투력으로도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8년 시점에 와서 육군의 전투 방식은 보병위주의 백병돌격을 재차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1920년대 초반에 새롭게 도입된 소개전투는 “아군의 화력과 돌격력을 발휘”하기 위한 부차적인 형태로 남게 되었다. 물론 돌격에 있어서도 중대단위에서 소대 및 분대단위로 또는 돌격을 하게 되었고, 야간의 어둠을 이용한다는 방법이 추가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백병돌격이라는 기본전술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일본 육군은 보병전술의 근간을 바꾸지 못한 채, 러일전쟁 이후 신봉해온 ‘일본 고유의 전술’인 백병돌격을 고수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 육군이 백병돌격을 통한 전투수행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1922년 러시아 제국의 붕괴와 소련의 탄생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육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러시아라는 가상적국 존재의 상실을 의미하였다. 한편, 섬나라라는 일본 고유의 지리적인 조건 탓에, 육군은 대륙에서 미국이나 유럽 열강과의 대규모 전투가 전개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1924년 「제국국방방침」에서 해군이 상정한 가상적국에서도 알 수 있듯이⁵¹⁾, 일본 군부 내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의 전쟁은 해군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육군은 이에 무관심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은 국방 예산의 확보와 군사적으로 육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 2차 개정판의 가상적국에

50) 陸軍省, 『歩兵操典』, 1909, p.2; 위의 책, 『戰史叢書 關東軍』(1), p.30.

51) 자세한 내용은 주15), 16)을 참고할 것.

기존의 소련을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중국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고려 속에서 일본 육군은 소련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에서 세계열강과 동질의 화력장비로 무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참모본부가 파악한 대 소련 및 중국 인식에서도 알 수 있다. 이미 1922년 참모본부에서는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 “병력수 등 잠재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매우 약체임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⁵²⁾ 특히, 소련 육군이 제1차 세계대전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보여준 모습 등에 근거하여, 소련 육군을 “훈련이 결여되어 있고 기본적 자질이 떨어지는 군대”로 평가하였다.⁵³⁾ 1926년 참모본부가 내린 소련 육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면, “(소련 육군의) 편성, 장비는 우리군보다 낫지만, 소질, 통수능력 면에서는 우리군보다 훨씬 떨어지며, 그들의 3개 사단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2개 사단 정도면 충분하다”로 소련 육군을 과소평가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가상적국에 대한 경시는, 일본 육군에게 화력과 장비의 증강이 부족해도 러·일 전쟁의 승리 속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기존의 보병 위주 백병돌격으로 중국 또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해주었다.

일본 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화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새로운 전투형태로서 ‘소개전투’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결국, 총검을 사용한 백병돌격이라는 전술의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 ‘군 근대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채, 일본 육군은 공격정신과 같은 무형적 요소의 강조와 함께 백병돌격의 기존의 전투수행방식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52) 參謀本部, 「帝國陸軍ノ軍備ニ就テ」, 1922.

53) 謀本部編, 「殲滅戰」, 『欧州戰史叢書』第特14号, 1921.

54) 鈴木重康中佐關係文書, 「極秘 對露作戰圖上演習實施要領」, 1926. 葛原和三, 「帝國陸軍の第一世界大戰史研究」, 『戰史研究年報』제4호, 防衛研究所, 2001, p.46 재인용.

4.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 육군의 제1차 세계대전의 군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전·소모전의 전쟁양상과 전투수행방식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 육군은 장기전·소모전 양상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국력의 문제, 군 수뇌부의 노선대립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준비보다는 단기결전을 통해 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동시에 단기결전을 달성하기 위해 작전술적인 차원에서의 포위섬멸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었다. 일본 육군이 선택한 단기결전은 국력, 가상적국 등 당시 일본이 처해있는 전략 환경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군사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단기결전으로 전쟁을 종결짓는 것이 쉽지 않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장기전·소모전에 대한 대비를 간과한 단기결전 일변도의 전략구상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군은 이른바 ‘군 근대화’를 통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려 했으며, 상대의 화력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대 단위의 ‘소개전투’를 채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군 근대화’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보병의 전투수행방식 역시 화력보다는 정신력을 보다 강조하는 백병돌격으로 나아갔다. 이는 물질전력의 확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투력을 정신력과 같은 무형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일본 육군의 현실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일본 육군의 입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전쟁양상과 전투수행방식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일본 육군은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대응은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기보다는 그와 다른 방법으로써 이를 회피 또는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 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제1차 세계대전, 일본군, 일본 육군, 군사전략, 전투수행방식, 제국
국방방침, 장기전, 소모전, 단기결전, 속전속결, 백병돌격, 총검돌격

<ABSTRACT>

Why Did the Japanese Army Embrace Short-Term Decisive Warfare and Close Combat Assault?: How the Modern Japanese Army Recognized and Coped with the WWI

Shim, Ho-sub

As the Second Sino-Japanese War (1937~1945) and the Pacific War (1941~1945) unexpectedly developed into protracted wars of attrition, Japan was eventually defeated in the Pacific theater of the WWII. Another factor in Japan's downfall was the Japanese Army's warfighting style, which had not changed from the Russo-Japanese War. A typical combat in the Pacific War saw Japanese soldiers charging into the cross fire of the enemy machine guns until their annihilation, and that became an object of awe and caricature at the same time.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Japanese Army recognized and coped with the aspect of a protracted war of attrition like the WWI and the typical WWI warfighting style that put firepower at its center. This then tries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the Japanese Army that caused its eventual demise in 1945. The Japanese Army recognized the need to prepare itself for a protracted war of attrition. Several factors including Japan's limited national capacity and the confrontation among the leading members of the army, however, led the Japanese Army to move away from such a preparation and toward short-term decisive warfare. Doing so, Japan would avoid being drawn into a protracted war of attrition. To that endeavor, the Japanese Army studied siege-and-annihilate operation in order to achieve short-term decisive warfare.

Given Japan's strategic environment such as her national strength and her potential enemies, the Japanese Army arguably made a reasonable

decision in embracing short-term decisive warfare. The WWI, however, had already shown the difficulty of achieving short-term decisive warfare. A strategy focusing only on short-term decisive warfare was bound to be limited in its effectiveness.

After the WWI, the Japanese Army also tried “modernization”, namely by introducing a new weapons system. It also employed Sokaisentou at the level of squad unit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enemy firepower. Because of the lack of the budget, however, the “modernization” of the army failed. The army also abandoned Sokaisentou in favor of close combat assault that emphasized willpower over the actual firepower. It seems that the logic reflected the reality facing the army at the time. As material strength became unattainable, the army had to rely on intangible strengths such as will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Army, the WWI was an opportunity to join the Western imperial powers by recognizing and coping with new patterns of warfare and warfighting style. The Japanese Army, however, failed to keep up with the times. Rather, it chose to avoid facing this new situation or to take a detour, thereby failing to participate in the new era.

Key Words : World War I (WWI), Pacific War, Imperial Japanese Army(IJA),
army, warfighting style, short-term decisive warfare, close
combat assault